

강도 공포에 문도 못 열고...숨 막히는 주민들

3인조 인질강도 아파트 주민들 폭염 속 '집단 트라우마' 시달려 "경찰 순찰 강화 등 미흡" 지적 속 극심한 스트레스에 이사 고민도 "국가·지자체가 서민아파트 최소한의 방법시스템 구축해 줬으면"

"한 여름 무더위에도 강도나 절도범이 들어올까봐 창문조차 제대로 못 열어 놓고 있습니다."

14일 오전 방문한 광주시 북구 운암동 1 아파트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지난 4일 백주대낮에 영아를 인질로 잡고 부모로부터 돈을 빼앗은 인질강도 사건(광주일보 2019년 7월 7일자 6면)이 발생한 곳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일, 범인들이 붙잡힌 지 일주일도 지났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집단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날도 아파트 상가 마용실에서는 50대로 보이는 주민들이 모여 인질 강도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아파트 주민 모두가 이 사건을 알고 있다"며 "현관문을 통해 들어온 강도 때문에 폭염에도 문조차 제대로 열어 놓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1997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20평형대 5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북도식 동향과 서향으로 건축돼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이번 인질강도 사건 전까지만 해도 많은 주민들은 여름이 되면 낮부터 초저녁 무렵까지 방충문을 설치한 뒤 현관문을 열어놓고 생활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체감온도가 30도를 오르내리는 이날 아파트 현관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고, 더위를 참지 못한 몇몇 가구만 안전고리를 채워둔 채 10cm 정도 현관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이 아파트에서 10년 이상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김귀선(70)씨는 "동향과 서향으로 지어진 탓에 평소 더운 여름에는 문을 열어둔 집이 많았다"면서 "사건이 일어나 이후 현관문을 열어놓는 집을 찾아보

기가 힘들고, 주민 대부분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주민들 중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가 느끼는 공포는 더욱 컸다.

네살 배기 여아를 둔 홍혜운(여·39)씨는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아이를 인질로 삼은 범행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너무 무섭다"면서 "사건 이후 어디를 가든 아이 손을 꼭 잡거나 안고 다니고 있다. 이사도 고민하고 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사건이 발생한 등을 맡고 있는 경비원 김기완(70)씨는 "관리사무소에서 현관문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당부 방송을 하고 세대마다 방문해 방법 강화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자체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난 수십 년간 문을 열어 놓고 살았던 일부 노인세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기 꺼려하는 한 70대 주민은 "우리 아파트는 대부분 서민이 살고 있어 에어컨이 없는 세대도 있고,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 때문에 장시간 가동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한다"면서 "폭폭 짜는 한낱

은 현관문이라도 열어놔야 숨이나마 쉴 수 있는데, 경찰과 관리사무소에서 무조건 "현관문을 절대 열지 말라"고 해 답답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주민들은 사건 발생 후 "모방 범죄 등도 우려된다"며 후속 대책에 무관심한 경찰과 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경찰이 형식적으로 '강도·빈집털이 예방 안내 전단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현관 등에 붙여놨을 뿐 순찰 강화 등 후속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또 서민들이 사는 낙후한 아파트의 경우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최소한의 방법 시스템이라도 구축해 줬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의무를 요구한 한 주민은 "대낮에 영아 인질 사건이 발생했으면, 최소한 주민의 불안한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경찰 순찰이 강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경찰력 투입이 어려우면 경광등을 켜 놓는 순찰차 만이라도 주차해놓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합의 거절하자 말다툼 끝 살해 광주북부경찰, 40대 긴급체포

광주북부경찰은 14일 폭행사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박모(47)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3일 밤 9시 55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술집 앞 거리에서 흥기로 직장동료 A(40)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폭행치상 등 전과 13범인 박씨는 지난 4일 술집에서 A씨를 때려 폭행 혐의로 입건된 후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이날 만났으며, A씨가 합의를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검거 과정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외국인 관광객들이 만든 광주음식 14일 광주시 북구 남도향도음식박물관 체험실에서 열린 광주대표음식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신들이 만든 잡채와 주먹밥을 자랑하며 한껏 웃고 있다. 광주 북구와 광주관광컨벤션뷰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맞아 광주대표음식 외국인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최현배 기자 choi@

여친에 욕했다며 친구17시간 감금·폭행한 2명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14일 일행 중 한명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동갑내기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이모(20)씨와 홍모(여·20)씨 2명을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달아난 공범 2명

과 함께 지난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13일 새벽 2시 35분까지 A씨를 17시간 동안 차량과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원룸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경기도 파주시 친척집에 놀러간 A씨를 찾아가 빌린 돈을 갚으러 왔다고

불러낸 뒤 차에 태워 광주까지 데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가 일행 중 한 명의 욕을 하고 다녀 화나게 했다고 뺨과 허벅지 등을 때리고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A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제거하고, 입고 있던 옷과 운동화가 마음에 든다며 빼앗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 등이 잠든 틈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인터넷 접속해, SNS 메신저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씨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2명을 추적 중이며 다른 범죄로 누범기간인 이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상위권 학생에 제공된 교재서 시험문제 출제 추가 의혹 광주 사립고 '내신 몰아주기' 조사

시교육청, 고3생 301명 설문 심화반 운영 불공정 문제 제기

광주의 한 사립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이 '상위권 내신 몰아주기'로 확대되고 있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한 사립고 기말고사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 특별감사팀은 최근 해당 고교 3학년 학생 3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받았다.

설문조사에서 일부 학생들은 자율동아리가 성적에 뛰어난 학생들 중심으로 운영됐고, 주요 과목의 수준별 이동 수업 등 심화반 운영에 불공정 사례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성적에 뛰어난 상위권 학생들에게 학습 편의를 제공하는 등 실제 '내신 몰아주기'가 이뤄졌는지 파악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또 3학년은 물론 1·2학년

과 이전에 치러진 시험 등에서도 상위권 학생에게 제공된 교재서 시험문제가 출제됐다는 추가 의혹이 나오면서 학교 측에 교재 목록 제출도 요구했다.

이밖에 최근 3년간 시험지와 답안지를 비롯한 감사를 확대하고, 학교 측이 기숙사와 자율동아리, 심화반 운영 등 상위권 학생들에게 학습 편의를 제공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학교 측은 현재 수준별 이동 수업 등 심화반 운영 사실을 인정하고 부작용을 고려해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시 북구의 한 사립고는 지난 5일 치러진 기말고사 수학문제(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 중 객관식 3문제, 서술형 2문제 등 5문제를 성적에 뛰어난 기숙사반 상위권 중심으로 구성된 특정 수학동아리에게 사전에 전달해 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개정 '아청법' 16일 시행

앞으로 가출 청소년이나 심적으로 위축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온라인상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개정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 전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의 제 강간을 규정한 형

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나이를 넘은 경우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던 처벌이 어려웠다. 실제 13세 이상 가출 청소년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속삭이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하고도 합의한 관계란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도 있었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경찰은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되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 유발정보 유통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소개팅 여성 집까지 쫓아갔다가...주거침입 혐의 입건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이 추가적인 만남을 거절했는데도, 여성의 집까지 쫓아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20대가 경찰서행.

○...14일 서울광진경찰에 따르면 A(28)씨는 지난 7일 친구 소개로 만난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B씨가 추가 만남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B씨

집 현관 안쪽까지 따라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B씨 가족의 항의에도 현관 앞을 떠나지 않고 "마음이 든다"며 만남을 요구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은 "A씨는 정신질환 병력이 없고 범행 당시 만취 상태도 아니었다"고 설명.

/연합뉴스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